

학동 참사 심층 취재·분석 돋보여...경제 이슈 보도 늘리길

광주일보 제9기 8차 독자위 회의

6월 29일 광주일보 9층 편집국 회의실

광주일보 제9기 8차 독자위원회가 지난 29일 광주일보 9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장필수 편집국장장과 김윤하 독자위원장을 비롯해 강대석, 강철성, 이철갑, 진용태, 조미옥, 최선희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7명이 참석했다.



광주일보 독자위원들이 지난 29일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김윤하 위원장 주재로 독자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



해양쓰레기 환경오염 경각심 쬐 QR코드 이용 동영상 시청 신선 재테크·암호화폐 더 다뤄주길

◇김윤하=광주일보는 지난 6월 9일 철거건물 붕괴에 따른 대형참사 소식을 '광주 학동 5층건물 붕괴·버스 덮쳐 17명 사상' (6월 10일자 1면) 머릿기사와 비롯해 2면·6면 등 3개 면에 걸쳐 자세히 보도했다. 사고 현황과 원인 파악 등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과 현장감 있는 기사와 사진으로 생생하게 보도해 돋보였다. 다만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보도된 큰 사고인 만큼 추후 깊은 취재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보도에 관심을 보였다. '80년 5월 그날' 광주는 이토록 참혹했다 (5월 31일자 11면) 화보 기사는 일본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사진을 발매하게 게재해 5·18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마 사태를 통해 광주 5·18을 알게 된 이들이 많다는 인터뷰 내용은 5·18이 세계에 연대의 힘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미얀마 사태를 통해 5·18을 훨씬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언론이 가지는 긍정적 역할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일본서 단독 입수한 5·18사진 발 빠른 게재 5·18 애정 느껴 예타 제도 개선 지속 보도를

◇강대석=광주일보는 '환경·에너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도 관심을 보였다. '아귀 뱃속서 플라스틱 물병 충격' 해양쓰레기의 역습' (4월 26일자 6면) 기사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돌고 돌아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게 됐다

보도에 관심을 보였다. '80년 5월 그날' 광주는 이토록 참혹했다 (5월 31일자 11면) 화보 기사는 일본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사진을 발매하게 게재해 5·18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전남 학부모 54% 자녀돌봄 체계 구축·학습격차 해소' (6월 8일자 12면) 기사는 전남뿐 아니라 전국 모든 학부모들의 걱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당국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풀어야 할 문제로, 지역 대표 언론인 광주일보가 문제 제기, 해결 방안 등 심층적인 기사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



이준석 등장 대선 흐름 잘 짚어 학동참사 사진 현장 생생 전달 재개발 '지분조개기' 등 기사 눈길

◇최선희=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광주일보는 서울 여의도 정치현장에서 전해주는 정치 뉴스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는 본사와의 2인3각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김윤하=광주일보는 '환경·에너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도 관심을 보였다. '아귀 뱃속서 플라스틱 물병 충격' 해양쓰레기의 역습' (4월 26일자 6면) 기사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돌고 돌아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게 됐다

'열악한 교육환경에...혁신도시 10.3% 기러기 가족' (6월 9일자 8면) 기사는 나주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생각하게 하는 보도였다. 아파트 공급에만 열을 올리기 보다는 여러 제반 시설과 문화를 구축해 혁신도시가 올바르게 정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진용태 광주전남변호사회 회장



자치경찰제 기획 기사 필요 '안심여행지 50' 전남관광 홍보 학동참사 수사 후에도 심층 보도

◇최선희=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광주일보는 서울 여의도 정치현장에서 전해주는 정치 뉴스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는 본사와의 2인3각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최선희=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광주일보는 서울 여의도 정치현장에서 전해주는 정치 뉴스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는 본사와의 2인3각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고교학점제 평가 어떻게 해야 하나' (6월 22일자 12면) 기사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눈길을 끄는 기사였다. 교육 변화를 위해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수능이 있는 한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

조미옥 나주 매성중 수석교사



'아버지의 5·18 사진' 기사 몽클 전남 학습격차 해소에 관심을 '고교학점제' 쉬운 보도 필요

◇최선희=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광주일보는 서울 여의도 정치현장에서 전해주는 정치 뉴스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는 본사와의 2인3각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최선희=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광주일보는 서울 여의도 정치현장에서 전해주는 정치 뉴스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는 본사와의 2인3각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인재 키우고 일자리 만드는 나주시 폐교 리모델링' (6월 21일자 13면) 기사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감축되고, 폐교까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반가운 기사였다.

강철성 전광주시테니스협회장



지방체육회장 선거 세력싸움 변질 부작용 방지 심층 취재 했으면 총체적 난국 KIA 깊이 있게 분석

◇최선희=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광주일보는 서울 여의도 정치현장에서 전해주는 정치 뉴스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는 본사와의 2인3각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최선희=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광주일보는 서울 여의도 정치현장에서 전해주는 정치 뉴스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는 본사와의 2인3각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강철성=최근 광주·전남 체육계는 사회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될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작용이 많은 현실이다. 지방체육회장 선거도 사회체육·전문체육 간 세력싸움으로 변질됐으며, 그 중 사회체육이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단체장을 꺾고 있다.

이철갑 조선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장



우리사회 문제점 응축된 학동참사 특별취재팀 지속 운영해 미리 커넥션 날낯히 밝혀주길

◇최선희=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광주일보는 서울 여의도 정치현장에서 전해주는 정치 뉴스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는 본사와의 2인3각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최선희=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광주일보는 서울 여의도 정치현장에서 전해주는 정치 뉴스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는 본사와의 2인3각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강철성=최근 광주·전남 체육계는 사회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될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작용이 많은 현실이다. 지방체육회장 선거도 사회체육·전문체육 간 세력싸움으로 변질됐으며, 그 중 사회체육이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단체장을 꺾고 있다.

◇강대석=광주일보는 '환경·에너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도 관심을 보였다. '아귀 뱃속서 플라스틱 물병 충격' 해양쓰레기의 역습' (4월 26일자 6면) 기사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돌고 돌아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게 됐다

◇최선희=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광주일보는 서울 여의도 정치현장에서 전해주는 정치 뉴스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는 본사와의 2인3각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철갑=학동 재개발 사업장의 여차구차 없는 붕괴 참사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당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응축된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고층아파트 건설을 부추기는 건설사와 부풀려진 아파트 부동산 가격의 비밀, 중대재해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과 힘없는 사람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대기업의 익숙한 꼬리 자르기 모습, 석면 철거를 둘러싼 환경문제,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 등이 얽히고 설키었다.

◇김윤하=광주일보는 '환경·에너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도 관심을 보였다. '아귀 뱃속서 플라스틱 물병 충격' 해양쓰레기의 역습' (4월 26일자 6면) 기사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돌고 돌아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게 됐다

◇최선희=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광주일보는 서울 여의도 정치현장에서 전해주는 정치 뉴스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는 본사와의 2인3각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더 큰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지방정치권과 토호, 공무원 등 사회권력과 밀착했을 때 지방자치경찰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했던 국민의 염원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시험대라고 본다.

◇김윤하=광주일보는 '환경·에너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도 관심을 보였다. '아귀 뱃속서 플라스틱 물병 충격' 해양쓰레기의 역습' (4월 26일자 6면) 기사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돌고 돌아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게 됐다

◇최선희=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광주일보는 서울 여의도 정치현장에서 전해주는 정치 뉴스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는 본사와의 2인3각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정리=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